

의정소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고양시의회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 키텍스,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사업, 전년도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고양시의회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9개소의 현장 및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철저히 준비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객관적인 평가와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선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재적의원 33명 전원의 투표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이길용 의원, 부의장에 이흥규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7월 2일 제2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김덕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강경자 의원, 환경경제위원장에 김운남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 문재호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정봉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건강 상식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며, 85도 이상 가열해 섭취한다.
 - * 조개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함.
 2.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4.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